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7/8월호
2016년



사진: VA Memorial Park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기념 추모식에서 (2016.6.25)

6.25 노래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밭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떠난 날을
이제야 갇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처서 무찔러....

이 6.25 노래는 6.25날이 올때 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66주년을 맞이해 호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김영신

2016년 7/8월호 내용

- 한인회소식 | 6.25관련 한인회 행사 | 김영신 : 2
- 한인회소식 | 어버이회에서 드리는 감사 | 윤태자 : 3
- 한국학교소식 | 가을학기학생모집/한국학교소식 | 김정현 : 4
- 칼럼 | 잊지말아야 하는 희생 | 김기천 : 5
- 설교문 |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 이시용 : 6
- 수필 | 여름-비 | 이정길 : 7
- 기고문 | 6.25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 오형철 : 8
- 인물소개 | 한국전 참전용사 히로시 미야무라 | 이경화 : 9
- 생활정보 | 행복한 미국생활(9) : 11
- 업소탐방 | The Garage 자동차리페어 마이크 조 : 14
- 산타페소식 | 산타페 시장 '두리하나의 날' 선포 : 15
- 신앙단상 | 순례 길 | 신동완 : 17
- 지역소식 | 케빈김 챔피언/북사인회/평통자문 : 16
- 지역소식 | NM공화당 대의원/오바마 칼스베드방문 : 17
- 지역사회소식 | 이경화장로 책 출판 감사예배 : 18
- 광고 | 뉴멕시코 한인교회안내 : 19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 20-21

6.25 관련 한인회 행사

김영신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6월 22일 (수요일) 12시에 한인회관에서 6.25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올해로 66주년을 맞는 6.25 기념 만찬 점심을 아버지그룹들과 함께 가졌다. 이번엔 특별히 군인으로서는 최고 무공훈장인 의회명예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히로시 미야무라(Hiroshi Miyamura)씨가(캘리포니아주)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야무라 씨는 재작년 한국정부의 박근혜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고 국가보훈처에서 수여하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초청된 참전용사를 대표해서 뉴멕시코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의 Jerry Chapman 회장이 한인회 여러분께 초청해주신 한인회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인사가 있었다. 미야무라씨도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한국을 방문했을때마다 눈부시게 달라지고 발전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전쟁터에서 싸운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후 참전용사들의 기념 촬영으로 행사를 마쳤다.

미야무라씨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 참전 용사 여러분들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를 전하고 싶다.

6월 25일(토요일) VA Memorial Park에서 오전 10시 뉴멕시코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KWVA) 주최로 6.25 기념 추모식을 가졌다. 참전용사와 가족들과 한인회 회원을 합쳐서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Jerry Chapman(KWVA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45분정도 행사가 치뤄졌다. 한인회에서 마련한 화환을 낸시 부회장과 Stan 부회장이 함께 헌화했다. Jerry Chapman 회장 께서는 항상 뉴멕시코 한인회에 감사한다, 매년 잊지않고 행사참여와 보살핌이 있었고, 그러기에, 유일하게 한국전쟁 참전용사 그룹들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다른 그룹(베트남 전쟁 등등)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마음이 뿌듯했다. 또한 Jerry Chapman 께서는 뉴멕시코주에서는 한국참전용사 사상자 수자가 베트남 전쟁 사상자 수자보다 더 많았다 하여 놀라웠다. 한국참전 사망자 250명, 베트남 전쟁 사망자 80명... 북한에는 아직도 고국으로 오지 못한 전사자의 유해가 많은데 유해를 가져오는 데는 북한의 협조를 끌어 내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유해호송을 위한 Fundraising 이 잘 되길 바라는 뜻으로 Quarter Coin을 비석에 얹어놓는 순서도 가졌다. 6.25를 잊지않고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한인회원과 교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표지 사진 참조) ■



6.25 한국전쟁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 한국지도



왼쪽에서 부터: 히로시 미야무라, 김영신, 제리차프만 (6월22일)



6.25 참전용사와 가족들과 함께 한인회에서 (6월22일)

어버이회에서 드리는 감사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속에 하루하루가 계속 됩니다만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가슴 깊이 서늘함을 안겨주는 신선함이 있는곳, 이곳 알버커키에 살며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사할수 있다는것에 감사하며 5월과 6월의 보고를 할까 합니다. 6월 1일 12인승 밴을 2대 대절하여 야유회를 갖습니다. 아침 7시부터 모여 차를 운전해 주고 봉사해준 문상귀 전 회장님과 김스마켓 김진욱사장님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비지니스를 해야 될 평일에 하루를 봉사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좋은 마음으로 해 주셔서 기뻐합니다.

두대의 밴을 타고 산타페에 있는 현용규 목사님 식당으로 가서 아침점 이른 점심을 대접 받았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산타페에 사는 김경숙씨도 식당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선물도 주시고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식사후 산타페 투어에 나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갤러리 조각품, 성당, 시청, 호텔등을 설명을 들으시며 구경 하셨습니다. 산타페 투어를 마치고 로스 알라모스를 거쳐 헤이메즈(Jemez) 산으로 드라이브를 하였습니다.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산도 하늘도 나무도 멋진 한쪽의 그림 같았습니다. 여러가지 야생화가 여기저기 피어있었고 멋진 적송들이 짙죽 자라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 오래 사셨어도 처음 가보신 분들이 많았고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비가 올까 염려 하였으나 날씨는 화창했고 신선한 공기와 멋진 경치는모두를 피곤치 않게 도왔습니다. 헤이메즈산에 Battelship Rock에 도착하여 불을 피우고 산책도 하며 시간을 즐기다가 이른 저녁을 먹고 돌아 왔습니다. 걷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기에 멀리 가거나 많이 걷지는 않지만 하루를 야외에서 즐기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속에 저 또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요즈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윤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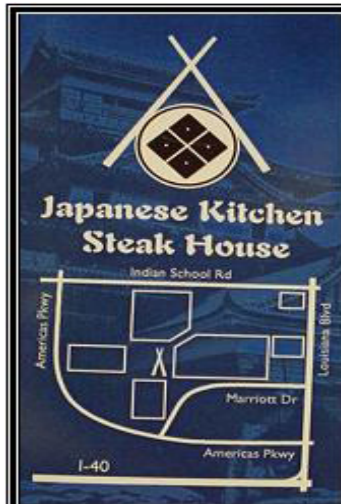
어버이회 회장



건지만 회비에 의존하기엔 턱 없이 적은 액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회 행사나 살림을 이끌어 갈수 있었던것은 온전히 은혜였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단체와 개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물질로 올해들어 새로이 후원해 주신분들은 이수신씨, 김철씨, 이성희씨 입니다. 5월에는 카톨릭 공동체와 김스 마켓에서 식사를 봉사해 주셨습니다. 6월에는 신광순 전회장님께서 이찌반 식당에서 식사를 후원해 주셨고 안주인이 안 계신 집에 가서 미리 준비해 두신 다과를 즐기며 가라오케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는 뉴멕시코의 6.25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5월과 6월의 어버이회 일정을 이지면을 통해 보고 드리고 보다 많은 회원들의 동참과 봉사자와 후원자를 기다림도 알려 드립니다. 지면을 허락해 주신 광야의 소리에도 감사 드립니다. ■



배틀쉽 락 피크닉 그라운드에서 어버이회 회원 기념사진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뉴멕시코 한국학교 2016년도 가을학기 학생 모집

1. 아동반 (토요일)

수업기간: 8월 27일 (토) ~ 12월 3일 (토)

9:15 a.m.~12:10 p.m.

과목: 한국어 읽기/쓰기/말하기/듣기 및 미술, 고전,
과학, 음악 특별활동

2. 성인반 (목요일 혹은 토요일 선택)

수업기간: 8월 25일 (목) ~ 12월 1일 (목)

5:30pm~7:30pm

8월 27일 (토) ~ 12월 3일 (토)

9:15 a.m.~12:10 p.m.

과목: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

- 학교 위치: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문의: 김정현 교장 nmkoreanlanguage@gmail.com,
814-777-9757

- 수업료: 150불

- 등록은 이메일 또는 학교에서 합니다. 등록하실 때 이름, 나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수업날짜 등을 알려주세요.

Fall 2016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1. Children Classes (Saturday)

Semester period: Saturday 9:15 a.m.~12:10 p.m.

from Aug. 27th to Dec. 3rd

Subjects: Korean Language -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cial courses - Art, Korean History & Culture,
Science, Music

2. Adult Classes (Thursday or Saturday)

Semester period: Thursday 5:30 p.m. ~ 7:30pm,

from Aug 25th. to Dec. 1st.

Saturday 9:15 a.m.~12:10 p.m. from
Aug. 27th to Dec. 3rd

Subject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School Location: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Contact: Junghyun Kim, Principal of the Korean
Language School

nmkoreanlanguage@gmail.com, (814) 777-9757

- Tuition: \$150

- Registration by email or on site. Please include name,
age, phone number, email, class day, and indicate
past experience if any.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김정현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장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정현 한국학교 교장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학교
새소식을 전하고 가을학기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마친 봄학기에는 총 7개반으로서 아동반 수업, 성인 초급/
중급반, 성인 고급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한국학교는
봄학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가을학기에
등록하는 기존의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학교에서 제공하는 작은 규모의
수업환경과 학생들과 교사들간의 상호작용이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한국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2016년 학기를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학교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가을학기 교육과정 개발, 학교 물품과 교사연수, 학교 행사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학기부터 새로운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학기부터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모신 선생님은 박영신 선생님입니다.
이 분은 오랜기간동안 한국학교에서 가르치신 경험을 갖고
계시며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향상을 통해
가을학기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다가갈것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학교로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한글과 한국문화를 뉴멕시코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글과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가을학기 수업에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합니다. 부디 한국학교 가을학기에 등록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학교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며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사 모집 공고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전달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
교사로서 2016년 가을학기부터 가르치시면 됩니다. 한국어
전공 혹은 비전공자 모두 환영하오니 한국학교 교사모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직접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으신 모든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 수업시간: 토요일 아침 9시 ~ 낮 12시 10분 (아동반, 성
인반),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반
- 수업장소: 뉴멕시코 한국학교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교사 봉사료: 시간당 \$14 부터
- 연락처: 한국학교 교장 김정현 814-777-9757
(nmkoreanlanguage@gmail.com)

칼럼

잊지 말아야 하는 희생

남한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던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을 개시했다. 평화로운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주일날 부수고 찢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물밀 듯이 밀려 내려오는 북한군은 불과 3일 만에 남한의 수도인 서울을 점령하였다. 금방이라도 남한 전역을 삼킬 것 같은 기세로 공격하던 북한군은 무슨 이유에선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서울에서 삼일을 머물고 있었다. 아마도 전략에 차질이 생겼던 것 같다. 본래는 동쪽으로 진격해 내려오던 북한군 2군단이 강원도를 점령하고 방향을 서울의 서남쪽으로 틀어서 남한의 퇴로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북한군 2군단이 춘천에서 막혀버린 것이다. 춘천에 있던 국군 6사단에 패해버린 것이다. 만일 북한군 2군단이 전략대로 성공했으면 남한은 순식간에 북한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춘천에서 북한군을 패하게 하시고 서울에서는 삼일동안 머물게 하신 것은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남한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다.

한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다음날인 6월 26일 유엔에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한다. 유엔은 곧 북한에게 도발을 금지하라는 결의문을 보낸다. 유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하자 유엔은 삼일 만에 유엔군 파병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정은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파병 결정을 내릴 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인 소련이 무슨 이유에선지 빠졌던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총 16개국 이 한국 전쟁에 부대를 보내고 5개국 이 의료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록에 의하면 미국이 참전 결정을 내릴 때에는 10초도 안 걸렸다고 했다. 북한군이 삼일동안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의 지원을 이끌어 내신 것이다.

1950년 7월 7일 유엔에서는 미 극동사령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전격적으로 유엔군이 투입되었지만 물불을 안 가리는 북한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진격을 거듭하면서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맥아더 장군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한다. 9월 23일 김일성은 모든 북한군은 후퇴할 것을 명령한다. 전쟁이 발발한지 삼 개월이 지난 9월 28일에 남한은 잃어버렸던 서울을 다시 찾게 된다. 이어서 유엔군은 10월 1일에는 삼팔선을 넘어서 북으로 진격하게 된다. 전쟁 4개월만인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국군과 유엔군의 승리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30만 중공군이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유엔군은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된 것이다. 11월 30일 북한 쪽에 있는 모든 유엔군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중공군들은 유엔군의 퇴로를 막았고 남으로 피난하는 난민들을 막았다. 추운 겨울이 들어서면서 유엔군의 퇴각도 어려워졌고 피난민들의 남하도 힘들어졌다. 유엔군은 193척의 배를 통해 흥남부두에서 10만 명이 넘는 유엔군들을 후퇴시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흥남부두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유엔군의 퇴각을 막으려고 흥남으로 집결해서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12월 21일 빅토리호(the SS Meredith Victory)의 선장 라루(Leonard LaRue)는 피난민을 구하기 위한 결심을 하고 배 안에 거의 모든 무기와 물자들을 버린다. 피난민들의 승선은 다음날인 22일 오후까지 계속되었고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23일 아침 흥남을 출발해서 부산으로 향했다. 본래 이 배는 선원들을 제외하고는 12명만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14,000명이 넘는 민간인을 태우고 450마일의 바닷길을 항해한 것이다. 선장 라루의 회고에 의하면 이 배는 당시 보호해주는 배들도 없었고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다고 한다. 선장은 작은 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또한 이런 엄청난 수의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 밖 부둣가에서 적을 방어했던 국군과 유엔군들이 있었다. 배가 떠난 후에 남게 된 이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 생사를 알 수는 이들이 되었다. 수많은 피난민들을 살려낸 흥남부두의 기적은 오늘날까지 참혹한 전쟁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존귀하게 여겼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다.

계속 밀려내려 온 유엔군은 삼팔선에서 서로 밀고 당기며 대치하게 되고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난 1951년 1월부터 전쟁 중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년 반 동안 삼팔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면서 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견들이 오갔다. 그러다가 정작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이루어졌다. 3년이 넘는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특히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많은 군인들이 죽어갔다. 유엔군들 가운데 미군들의 통계만을 보면 전쟁 중에 사망한 숫자는 54,246명, 부상자 103,284명, 행방불명 8,196명, 포로 3,746명, 총 169,165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이다.

〈19페이지로 계속〉

설교문(특별기고문)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이시용

Wesley UMC, Van Wert, OH
담임목사

어떤 할아버지께서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의사에게 호소하시길, “요즘 제 아내의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 못알아들어요!” 의사가 말하길,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청력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에게서 10미터 떨어진데서 말씀 해보세요. 그래도 못들으시면 5미터에서 해보시고, 그래도 못들으시면 더 가까이 가서서 말씀 해보세요.” 집에 오자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에게, “여보, 오늘 저녁이 뭐요?” 하고 멀찍이서 물으셨습니다. ... 아무 소리가 안들리자, 더 가까이 가서서 물으시길,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냐 말이요?” ... 여전히 아무 소리가 없으셨습니다. “이 할멈이 귀가 단단히 먹은 모양이군” 하고 할아버지는 중얼거리시면서 할머니 바로 뒤에서 소리 치셨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거요?” 할머니께서 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세번이나 ‘닭죽’이라고 말했잖아요!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현세에서 내세 까지 더욱 중요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통해 말씀 하십니다: 우주와 자연의 신비, 역사의 교훈, 사람들의 겸손과 사랑과 지혜 등. 특히 그리스도의 삶과 성경을 통해 주님이 분명히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못들을 때는 문제를 하나님에게 돌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감이나 교만이나 풍요나 절망 속에 묻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란 온갖 어려움들입니다.



건강, 재정, 관계, 사회 등에 문제가 깊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묻게 됩니다. 이때 문제만 보면 거기 묻히기 쉽지만, 그러한 자리에서 의지할 데 라고는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 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할 것을 궁궐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들이나, 대제사장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1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코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2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광야’ (wilderness) 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눅 3:1-2).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선지자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많은 이들을 회개 시키고, 구원받을 준비를 시켰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해드렸고, 사람들을 그에게 인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자리가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요? 놀랍게도 “광야”는 곧 “말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말로 “말씀” (word)은 “다바르” “dabar” (דָּבָר) 이고, “광야”(wilderness) 는 이 어근을 가진 “미드바르” (midbar, מִדְבָּר) 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란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광야” (midbar)의 히브리 첫글자 멤 (m.mem)은 물 (water)을 상징 합니다 (http://www.hebrew4christians.com/Grammar/Unit_One/Aleph-Bet/Mem/mem.html). 즉 “광야”는 메마르고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과 혼돈의 곳이지만, 오아시스 같은 “말씀의 물”이란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때 이들을 해방시키는 사역과 “말씀”을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가 좋아서 거기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는 광야로 도망 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이름 없는 목자로 양을 치고 살면서 얼마나 가족, 고향, 친구, 화려했던 생활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광야 깊은 곳의 산에 별볼일 없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놀라운 지침이 되며 구약의 핵심이라 할 십계명을 그 광야 가운데 있는 호렙 (시내) 산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세가지 시험들을 받으실 때 매번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광야 시험이나 시련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들 (먹는 것, 하나님을 시험, 교만) 입니까? 눈 앞이 안보이게 하는 모래 바람 이는 광야 입니까? 땀과 진을 다 빼는 메마른 광야 입니까? 오한이 나는 밤같은 광야 입니까? 전갈과 독사의 살기가 도는 광야 입니까? 외롭고 적막한 광야 입니까?

(17페이지로 계속)

수필

여름 - 비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한 알의 작은 씨앗도 햇볕, 바람, 흙과 함께 비가 있어야 싹이 튼다. 사철 내리는 비. 봄에는 보슬보슬 내리고, 여름에는 장대처럼 내리며, 가을에는 지적지적 내리고, 겨울에는 추적추적 내린다. 비 내리는 모습을 형용하는 우리말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이 많다. 그렇게 내리는 비는 생명의 원천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살게 해주고 자라게 해주며 대를 이어가게 해준다.

비는 사람의 마음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엉덩이를 붙이고 있질 못했다. 바람 없는 날 봄비가 이슬처럼 내리면 젖는 것도 꽤냄하지 않고 눈독일을 쏘다녔다. 장맛비가 내리는 여름에는 비옷에 장화를 신고 큰물진 들판을 보러 다녔다. 가을에는 쓸모 없는 비로 자작자작한 마당이며 고살길을 무작정 걸었다. 을씨년스러운 겨울비를 맞으며 해마다가 한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 집으로 발길을 돌리기 몇 번이던가. 변변한 채비도 없이 나서고는 해서 번번이 젖어 들어오던 나는, 어머니의 정 깊은 걱정을 되풀이 들으면서도 그 버릇을 끝내 못 고쳤다. 온 몸이 축축해지는 느낌과 혼자 걷는 맛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돌아와 마른 수건으로 닦았을 때의 상쾌함을 즐기려던 짓이었는데도 모른다.

비다운 비는 여름에 내린다. 조짐부터가 다르고, 내리퍼붓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다른 철의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여름철에 오래도록 가물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모두들 비나 한 줄금 시원스럽게 쏟아지기를 바란다. 별은 뜨겁기만한데 뭉게구름은 저만치 한가하게 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사방이 끔찍해진다. 아쉽게도 비는 조금 내리다 말고, 금방 햇볕이 반짝 뜨면서 잠시 이슬비가 내리다가 그쳐버리는 비는 여우비다.

감질 나게 만들던 날씨도 때가 되면 달라진다. 먹구름이 멀리서부터 몰려오면서 시퍼런 번갯불이 번쩍이고 이내 귀청이 나갈듯 천둥이 울린다. 번개와 천둥이 몇 번이고 되풀이 되고

이어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더러 우박이 함께 떨어져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고, 물걱정을 덜어주며, 열정도 맛보게 하는 소나기. 흔히 오래 내리지는 않아 처마 밑에서 굶고는 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앨버커키에서 여름에 가끔 내리는 비는 그 판박이다. 거센 바람이 뇌운을 몰아오고, 한참 동안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리다가 쏟아지는 폭우는 가끔 우박을 쏟아내는 것까지 닮았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해가 다시 나온다.

고온다습한 여름의 계절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우리나라와 일본 혼슈 연안에 머무르던 장마 전선이 유월 하순이면 오락가락 북상하며 장맛비를 내린다. 그때만 해도 산에 나무가 많지 않은데다가 관개 시설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장마철이면 번번이 홍수가 나 온 들판이 물바다가 되던 것이다. 행여 물이 쉬 빠지지 않아 벼가 상할까 어른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으나, 벼의 꼬트머리만 살짝살짝 보여주면서 넘실대는 물은 언제나 눈앞에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일찍이 위나라 사람 동우董遇는 비 오는 날은 갠 날의 나머지여서 책을 읽기에 알맞다고 했다. 소낙비를 맞고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무상을 깨친 스님도 있었다. 옛날 숨어살던 선비들은 비 오는 날에는 대문을 닫은 다음 방을 청소하고, 사람의 왕래가 끊어져 실내가 적막해지면 방안 가득한 책 가운데서 마음 내키는 대로 뽑아 펼쳐보는 즐거움으로 살았다. 여름날, 나는 몇 번 무등산 산장의 새로 단장한 풀밭에 누워 멀리 한가하게 떠도는 흰구름을 한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를 맞고는 어릴 적의 버릇을 떠올리기도 했다.

여름비 내리는 날을 내가 좋아하던 이유는 빗속을 걷는 것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이 점차 커져, 앞서 내린 비로 동그랗게 팬 자리 한가운데로 줄줄이 떨어진다. 시원한 대청 툇마루에 드러누워 낙숫물 듣는 소리를 즐기다가 나도 모르게 잠든 뒤 깨어났을 때의 그 산뜻한 기분을 무엇에 비하랴. 농사꾼에게는 땀벌도 없었다. 하지만 논밭에서 흠뻑 젖어가며까지 일할 수는 없는 노릇. 비 오는 날은 어머니가 밭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고, 입에 딱맞는 주전부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허리에 묶었던 책보를 끌러버리기 무섭게 밭으로 내닫던 시절이었다. 칠십 여 년 전을 더듬다 보니 엄마 생각이 간절해진다. ■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6.25 특별기고문

6.25,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글쓴이소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했으며, 풀러튼' 남가주 평안교회'를 담임한 후 은퇴했다. 주요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로서 많은 글을 게재했으며 저서로 '작은 참회록', '면경록: 11번째의 계명' 이었다. CA소재 베데스다 신학대학원(당시 총장 조용기목사)을 졸업했다. 대학원에서 수학시절 본 교회의 현용규 목사님과 3년간 동문수학했다.



오형철

남가주평안교회
은퇴목사

유행가 가사에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처참했던 민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는 어느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한다. 더욱이 남북 평화가 운위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6.25를 말하고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냉전주의요 수구며,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리가 있는 이야기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과연 그런 것인가? 지난 불행했던 과거를 오늘에 끄집어내어 그것을 기억하고, 분노하고, 억울해 하고 원망하자는 말이 아니다.

비록 역사 속에 묻혀버린 과거사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진정 우리 민족의 영원한 평화와 화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없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도 결코 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이 세상 그 어느 민족이고 전쟁의 불행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없고, 또 그 어느 한 나라도 패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지만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민족이라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물론 그 모든 바탕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들의 민족혼이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선민사상과, 조상들이 겪은 불행을 결단코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없다는 민족애,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끼쳐진 그 어떤 만행일지라도 용서는 하되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조상들이 겪은 혹독한 불행을 오히려 자랑처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불행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은 유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우리들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말들을 그들은 초등학교 교과서 책머리에 기록하고, 심지어 민족박물관을

만들어 조상들이 겪은 참극과 홀로코스트 가스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음으로써 그곳을 찾는 후손들이 부끄러운 조상들의 불행을 보고 다시는 그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 온 천지가 다 아는 역사의 실체를 남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과거라는 이유로 숨기려 하고,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적 싸움과 갈등으로 자신들의 집단적 이기를 도모하고, 선량한 국민의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해서 마치 자기들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오직 자기들만이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선도하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숨기려 한다.

손바닥으로는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역사의 실체는 그 어떤 변명이나 술수적 포장으로 감추어지거나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후손들의 원대한 꿈의 성취를 위해 민족의 양심으로 정직해야 한다. 비록 아픔과 부끄러움과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만이 당당한 조상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는 것이라.

애국은 논리도, 개념도 아니다. 남과 북으로 잘려진 이 땅 위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동서의 분열을 조장해 자신들의 벼슬을 지키고 치부하는 그런 패거리들이 말하는 과썸한 입술놀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과 나라가 이념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의 정서적 약점과 말초를 교묘히 이용하고 자극해 만행의 역사를 은폐하고 정당화 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는 어떤 술수나 위선도 용납될 수 없다.

애국은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신실한 양심을 열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간절했던 비탄의 목메임을 선한 양심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한국전 참전용사 히로시 H 미야무라는 어떤 인물인가?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970년 초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갤럽 시를 지나는 I-40 하이웨이에서 미야무라 드라이브(Miyamura Dr.)라는 도로 표지판을 봤다. 뉴멕시코의 작은 도시 갤럽(Gallup)에 어떤 이유로 일본사람 이름의 도로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야 한국전 참전 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일본인 2세 미국인 히로시(미국 인들은 Middle Name 허시(Hershey)를 더 좋아한다) 미야무라에 대해 알게 됐다. 그는 갤럽 시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I-40 exit 22번에 있는 오버 패스 가교도 그의 이름을 딴 Miramura Overpass이다. 늘 이 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6월 22일 한인회에서 마련한 6.25 참전용사를 초대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 참으로 기뻐다.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앨버커키까지 와 주신 것에 감사했다.

오래전부터 기회가 있으면 미야무라 씨가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을 더 자세히 기록해 위키백과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에 우선 광야의 소리 7월호를 통해 소개하게 됨 또한 기쁘다. 지금까지 신문기사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자료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종합해 참전용사 히로시 미야무라 씨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인회에 오신 히로시 미야무라씨
 2016.6.22

히로시 미야무라씨는 1926년 뉴멕시코주로 이민 와 살던 일본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갤럽 북쪽에 있는 Gamercot 탄광에서 채굴한 석탄의 중량을 재는 일을 하다가 갤럽 시에 'OK Café'라는 햄버거 식당을 열어 운영했다. 이 탄광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했는데 얼마 뒤 폐광되면서 많은 광부가 실직하게 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갤럽에 정착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갤럽에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산다.

히로시 미야무라가 11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위중하지는 않았던지 아들 히로시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일본인 감리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를 권했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 캘리포니아의 Pacific Palisades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부고를 받았다. 어머니가 권해서 간 여행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사이에 어머니를 불러 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일로 여러 해 동안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후에도 이와 비슷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불행한 일도 더 좋은 것을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Gallup Journey Magazine의 Bob Rosebrough 씨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 있다.

그는 이차 대전 중 1944년 1월 군에 징집되어 입대했다. 자원입대를 하고 싶었으나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국의 국민으로 취급해 자원입대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인 2세(Nisei)로 구성된 제100보병대대에 소속됐는데 이 대대는 니세이 부대(二世部隊)라고도 불렸다. 이 부대가 유럽 전투에서 눈부시게 좋은 전과를 내자 비로소 일본계 미국 군인들의 충성심이 인정받아 일본계 미국인도 자원입대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제100보병대대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이 소대장으로 역시 많은 공을 세운 기록이 있다. 유럽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에 그가 속한 442연대 제100보병대대는 뉴욕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워싱턴 D.C.에 가서 Constitution Avenue에서 개선행진을 했다. 투루만 대통령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열을 받으며 그들을 환영했다. 전쟁이 끝나고는 예비역에 편입되었고 갤럽으로 돌아와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며 살았다. 1948년 테리(Terry) 씨와 결혼해서 방 둘짜리 작은 집에 살았다. 테리 씨의 가족 역시 일본인 이민 가정이었고 장인어른 츠시모리(Tsuchimori)씨는 애리조나 윈스로(Winslow)에 있는 산타페 철도회사에서 일했다.



옛날의 미야무라 하사

결혼한 지 2년 된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자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전환 다시 입대해 한국전에 참전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복진하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야무라가 속한 부대는 압록강이 보이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1950년 11월 26 일에 중공군이 물밀 듯이 압록강을 넘어오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가 속한 부대는 후퇴를 계속해 간신히 흥남을 통해 철수할 수 있었다.

서울이 또다시 적의 손에 들어갔다가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임진강까지 진격해 올라갔을 때 미야무라와 그의 부대는 1951년 4월 24일 제3 보병사단 제7 보병연대 2대대 소속으로 중공군의 1차 춘계 대 공세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명령받았다.

10여 명의 기관총 사수와 5명의 소총병으로 구성되어 있던 미야무라 병장의 부대는 임진강이 가까운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근처 고지에 방어선을 치고 중공군과 대적했다. 4월 24일 밤 적군이 몰려오자 참호 안에서 방어 태세로만 있다가는 점멸 당할 수 있겠다는 위기를 느끼고 대검을 총에 끼고는 주저 없이 참호 밖으로 뛰어나가 적과 백병전을 벌였다. 약 10명의 적군을 사살하고 참호로 돌아온 후 부상병을 응급조치하고 후방으로 후송하도록 명령했다. 또다시 적군이 공격해오자 기관총으로 방어했으나 탄환이 다 떨어져 더는 방어할 수 없게

되자 부하 대원에게 후퇴명령을 내렸다. 자신은 옆에 있는 다른 참호로 옮겨가 그곳에 있는 기관총으로 분대원과 함께 중공군에 대항했다. 거기서도 탄환이 다 떨어질 무렵 분대원들에게 혼자 남아서 엄호사격을 할 테니 전원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혼자 엄호사격을 맡아 분대원들을 안전하게 퇴각시켰으나 곧 탄환이 떨어져 기관총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참호 밖으로 뛰어나가 백병전으로 적과 대항했다. 그러던 중 수류탄 파편을 맞아 발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적군은 고지를 점령하고 지나갔지만,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미야무라를 못 보고 지나쳤다. 날이 밝아 오고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밤이 되면 기어서라도 아군 진지로 도망가려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던 중에 적군 장교에게 발각되어 포로로 잡혔다. 미야무라가 포로로 잡혀간 이틀 뒤에 미군이 고지를 재탈환했는데 미야무라의 기관총에 맞아 쓰러진 적군으로 추정되는 시체 50구 정도가 그때까지 널려 있었다고 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3년 1개월 만에 한국전쟁은 끝나고 판문점에서 포로교환이 시작되었다. 미야무라는 28개월간의 힘든 포로생활을 잘 견뎌내고 드디어 1953년 8월 21일 판문점 자유의 마을에 있는 미군에게로 귀송되어왔다. 미야무라는 곧바로 헌병의 안내로 판문점과 있던 랄프 오즈본(Ralph Osborne) 준장 앞으로 불려갔다. 장군이 히로시 미야무라에게 “왜 내가 자네를 불렀는지 아는가?”라고 하자 미야무라는 어리둥절해 하며 모르겠다고 답했다. 장군은 “자네가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려고 불렀다네”라고 말했다. 미야무라는 너무 놀라 “What?”이라고 했다. 이말 외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한다. 다음날 장군을 다시 만나 알게 된 사실은 자기가 무공훈장 수여자가 된 사실은 극비에 속하는 군사기밀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이 무공훈장 수여자 명단에 올랐다는 정보가 적군 측에 들어가면 그에게 어떤 보복이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공훈장을 받게 된 사실을 극비에 부쳐 온 것이다.

히로시 미야무라가 고향 집에 돌아오는 날은 갤럽 시가 축제에 들뜬 날이었다. 갤럽 기차역에서 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시장과 National Guard General, Sheriff을 포함한 유지들이 플랫폼까지 마중 나와 환영했다. 공립학교도 반나절 휴교하고 많은 학생이 역에 운집해 있었다. 앨버커키에서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회원도 여러 명 와 환영했다. 군악대 연주가 있었고 역에서 집까지 컨버터를 차로 퍼레이드를 해 보냄으로 행사를 마쳤다. 며칠후 백악관에서 편지가 날아왔다. 백악관에서 있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오라는 초청장이었다. 10월 27일 백악관에 가니 7명이 훈장을 받는데 하필이면 미야무라가 제일 먼저 단상에 올라가도록 순서가 짜여 있어 더욱 긴장했다. 그 긴장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풀어졌다. 단상에 올라온 미야무라에게 대통령은 귓속말로 “긴장되나? (Are you nervous?)”라고 물었다. 미야무라가 “Yes, Sir!”라고 힘차게

답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다시 귓속말로 “나도 긴장되네. 백악관에서 훈장을 걸어주는 일을 나도 처음 하니까 말일세 (So am I. This is one of the first I’m putting on at the White House)” 이 말을 듣고 나자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졌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부터 훈장을 받고 악수하는 미야무라 하사

그 후로 히로시 미야무라는 다시 평범한 갤럽의 소시민으로 돌아와 살았다. Auto Stor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주유소와 자동차 수리를 겸한 비즈니스를 했다. 갤럽 사람들은 그를 신임해 자동차 수리를 마음 놓고 맡기곤 해 비즈니스도 잘돼 행복했다고 부인 테리 여사는 말했다. 그러나 1984년 뒤늦게 전투 경험으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문 용어로는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이라고 한다. 건강을 위해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은퇴를 했다. 은퇴 후에도 퇴역군인회에 관련된 봉사 활동은 꾸준히 해왔다.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을 때마다 워싱턴 D.C.에 초청받아 다녀왔다. 현충일 때마다 기념행사 연사로 여러 곳에서 초청받아 바쁜 일정을 보내기도 했다.

2014년 결혼 생활 68년을 함께했던 부인이 세상을 떠나 외로운 형편이 됐지만, 봉사 활동은 여전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한인회에 오셔서 인사말을 할 때 그간 한국을 여러번 초청받아 다녀왔는데 매번 방문할 때마다 달라지고 발전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참전했던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4년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UN군 참전 용사 다섯 사람에게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미야무라씨는 그중 한사람이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야무라씨는 슬하에

세 자녀, 네 손주가 있다. 자동차서비스 스테이션을 운영해온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으나 세 아이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킨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손녀 중에 마리사 (Marisa)



미야무라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었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통신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0년 일리노이주 스커트공군 기지에서 열리는 Asian 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 Celebration 행사 연사로 초청받았던 미야무라씨가 부인 테리 여사와 손녀 마리사와 찍은 사진이다. 끝으로 갤럽에 두 번째로 생긴 고등학교 얘기로 끝맺으려 한다. 2007년 갤럽에 있던 중학교 Gallup Junior High School을 고등학교로 승격했는데 이때 학교 이름을 Miyamura High School로 지었다. 학생들에게 미야무라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본받게 하려는 갤럽 시민들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집부)

2-1 시민권 취득/부모님 영주권 초청



딸의 초청으로 이민 온지 어느덧 6년이 된 김길동씨는 올해 5월이면 시민권신청 양식이 바뀐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복잡하기만 하다. 빨리 시민권을 따서 이집사, 박집사처럼 투표하고 누구에게 한 표를 던졌노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이제 손주들도 다 컸으니 노인 아파트에 나가 두 부부가 오롯이 살고싶다는 생각을 한지 벌써 서너해가 지났다. 오늘은 큰마음 먹고 내키지는 않지만 이민 박사라 불리는 이은달 집사를 만나 시민권을 딸수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 볼 요량으로 이집사가 매일 간다는 맥다방으로 향하고 있다. 맥다방에 들어 서자 이미 커피 한잔을 앞에 두고 신문을 활짝 펼쳐 읽고 있는 이집사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 온다.

“안녕하세요, 이집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고, 김집사님께서 무슨 일로 맥다방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집사님께 어떻게 해야 시민권을 딸 수 있는지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한 1년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러 사회복지단체에 갔었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해외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다고, 좀 더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오매불망 신청할 수 있는 날만 기다렸고, 이제야 집사님께 노하우를 배우러 왔네요.”

전문가의 한마디

해외 장기 체류/재입국 허가

많은 분들이 재입국 허가서를 영주권 연장이나 비자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연장할 수 있는 성격의 이민 신분이 아니고 비자도 역시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할 경우, 이민국에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서류로 미국으로 돌아올때, 공항에서 이를제시하지 못하면 미국 거주 의도를 포기한 영주권자로 간주돼 곤란을 겪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재입국 허가가 있으면 최장 2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다해도 이민국에서 볼때, 영주권자가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는 재입국한 날로 부터 4년 1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일단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니 축하드려요. 손주를 돌보면서 지내는 이민 생활을 한가하게 볼수는 없지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린 손주 돌보는 조부모들 대부분이 손주들이 어느 정도 커야 시민권도 그때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도 그랬고요. 이젠 공부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나저나 영어로 인터뷰 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쉽지 않으실텐데, 영주권자가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옛것제 온 것 같은데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한국에 체류한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6년이 조금 넘는 것 같네요.”

“아, 유감이에요. 그러면 시민권 인터뷰 때 한국어 통역자를 동반하실 수가 없는데 일단 통역자가 있으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읽기와 쓰기 시험도 면제되니 심적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이제서야 말이지만 저도 열심히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이 했는데 영어로 시험을 두 번이나 봤다가 낙방하고 5년 후에 통역을 대동해서야 시민권을 땀어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땐 왜 그리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변에서 다들 시민권자라고 자랑들 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전문가의 한마디

통역자 동반 요건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통역자를 동반하여 시민권 인터뷰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읽기와 쓰기 시험은 면제 됩니다.

“그나저나, 김집사님은 경찰한테 티켓을 받고 법원에 가신 적이 없으신지요? 최근에 방집사가 오래된 법원 기록을 잊고

있다가, 시민권 인터뷰 때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1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아들이 벼룩 시장에서 장사할 때, 경찰 단속에서 걸린적이 있었다네요. 그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집사가 가게 주인인 척해서 자기 이름으로 티켓을 받고 벌금을 물었다나 봐요. 물론 법적인 서류들이 다 방집사 앞으로 나온 거지요. 사실상, 본인 가게가 아니었으니 까맣게 잊었다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예전 체포 기록이 있으니 법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너무 꼬치꼬치 캐물어서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가 없을 지경이 었다네요.”

“다행이, 저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일용직 근로자라 여기저기 쫓아 다니느라 돈을 못 벌었다고 보상금을 더 받기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던 적이 있어서요. 2천여달러의 배상금을 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종결됐지요. 이런 것도 시민권 인터뷰에서 밝혀야 하나요? 그럼, 인터뷰에 뭘 준비해 가야 하죠?”

“민사 건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었어요.”

전문가의 한마디

형사법 위반 여부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법원 판결문 (Court Disposition Form)을 발부받아 시민권 신청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경범죄 전과는 상관없으나 중범죄 형사법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민국에서는 교통법 위반 관련, 음주 운전은 무겁게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혹 영주권자가 된 이후로 세금 밀리신 적이 있어요?”

“소득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손주들 봐 주면 저희 두 내외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대주니까요. 돈을 벌 생각도 안 했을뿐더러 영어가 안되니까 엄두도 못 냈지요.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냈어야 하나요?”

전문가의 한마디

세금 체납 여부

납세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혹, 현재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국세청과의 편지와 가장 최근 납부 기록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늦은 나이에 이민 온 부모들은 일을 하지 않고 손주들 키우는 것으로 일을 대신하지요. 그럼 혹시 지금 푸드 스탬프나 다른 국가 보조금을 받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것도 이래저래 미루다가 지난달에 푸드 스탬프와 생활 보조금을 신청했어요. 아마 이 달부터 나올 거예요.”

“늦게 신청하셨네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 필요한 것을 몰라서 신청을 미뤘었는데 바뀌는 보증을 신청하려다 보니 필요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그럼 이번에 시민권 신청하실 때, 신청료도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실은 \$680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조금씩 모으는 중이었거든요. 모자라는 것은 아들에게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전문가의 한마디

신청료 면제 신청

푸드스탬프, 생활 보조금, 현금 보조등을 받고 계시거나 가정 소득이 이민국의 저소득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면 시민권 신청료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료가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가 지금 신청하면 언제쯤에나 인터뷰를 하게 되나요?”

“신청서를 일단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찍은 후,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인터뷰에 통과하면 선서식에 가는 순으로 진행이 돼요. 우리 며느리 동생은 지난해 9월 초에 신청했는데 12월 말에 시민권 증서를 받았단데요. 이 전 과정이 채 4개월도 안 걸린거지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하세요.”

“그럼 인터뷰에서는 공부한 100문제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과는 달리, 요즘은 언어 소통이 되는지,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해 공부를 했는지 확실하게 점검한다고 하네요.”

“내 원 참, 벌써부터 긴장이 되서 커피 맛을 모르겠네요. 빨리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게 지나가서 선서식 편지가 도착했다고 상상하고 싶네요.”

전문가의 한마디

시민권 인터뷰 준비

인터뷰는 보통 시민권 시험이라 불리는 미국 역사와 정부, 지리에 관한 100 문제에서 묻는 시험, 읽기, 쓰기 시험이 있고 이미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점검하는 의사 소통 여부 점검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뷰는 두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만약 한번 불합격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에도 불합격하면 다시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서 새로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터뷰에는 지참이 요구된 서류는 꼭 가져가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1. 신청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중 최소한 1명이 시민권자이고 그 부모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3.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신청자가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지난 3년동안 동거해 온 경우는 3년이 경과했으면 됩니다.)
4. 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한 주에서 신청서 접수 전까지 최소한 3개월을 거주 하셨어야 합니다.
5. 시민권 신청 접수 전 5년 중에 2년 6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1년 6개월을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6. 시민권 신청 접수 전, 5년 거주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국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세금 보고, 월세, 주택 융자금 등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주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7. 시민권 신청 후부터 시민권 취득 전까지 미국 내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8. 시민권 신청 전, 5년 동안 도덕적 결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3년 동안 도덕적 결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도덕성을 지적받을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타인을 해칠 의도로 저지른 범죄
- ☐ “시위” 또는 기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재물이나 정부에 대해 저지른 범죄
- ☐ 합계 형량이 5년 이상이 되는 두 가지 이상의 범죄
- ☐ 마약관련법 위반
- ☐ 습관적인 음주 또는 음주운전
- ☐ 불법 도박
- ☐ 일부다처 또는 일처다부
- ☐ 이민법상의 혜택을 누리려고 거짓말하는 것
- ☐ 법원 명령인 자녀 부양이나 위자료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것
- ☐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거주기간 동안 180일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 ☐ 테러 행위
- ☐ 인종, 종교, 출생국가,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그룹을 이유로 한 박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민 초기의 맞벌이 부부였던 이견우와 김직녀는 늘 학교에서 오면 외로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었다. 아이가 친구들 사귀어 집에 데리고 와도 다른 문화와 언어권의 친구들이라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서, 친구들이 가고 나면 아이들에게 친구의 호구 조사를 하느라 바쁘다. 호구 조사를 하다가 아이들의 편찬을 먹은 적도 한두번이 아니고, 아이들로부터 엄마는 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싸운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끔찍 앓다가 생각해 낸 것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해서 아이들을 잘 키운 박사임당네를 찾아보기로 했다.

“딩동...”누구세요?”

“어머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응, 지나는 길에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나 하고 한번 들러봤어.”

“어머, 애 진짜 무슨 일 있나보네, 걱정 있구나?”

“응, 알잖아, 요즘 나 애들하고 거의 매일 싸워, 미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좀 힘들어야지, 엄마는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니까, 애들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거든, 걱정이 되잖아, 멀쩡하게 생겼어도 누가 알아, 그러다가 싸우는 거지, 뭐, 그래서 나도 언니처럼 부모님을 초청할까 해, 언니,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줘.”

“아, 그거라면 뭐...나도 처음에는 초청장만 여기서 내면 부모님들이 금새 올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웬 걸, 먼저 엄마를 초청했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는 엄마가 미주 공사와 대사관 문을 들락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아빠는 여기에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해결했어.”

전문가의 한마디

피초청인의 현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초청 수속

피초청인이 미국 외에 거주하는 경우, 초청인이 초청장을 내면 피초청인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다가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인터뷰를 한 후,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옵니다. 이 경우, 피초청인이 연로한 부모님이시면 부모님들에게 이민 준비가 많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 있을때, 초청인이 초청장을 내면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국에 익숙한 초청인이 제출하게 되므로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가는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미국과 피초청인의 거주 국가 사이를 오갈 필요가 없으므로 수속 시간도 줄어드는 잇점이 있습니다.

국외에 있는 부모 초청시, 미 시민권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인의 법적 이민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 초청인이 이름을 바꾼 적이 있으면 개명 판결문
3. 피초청인이 모친일 경우, 모친과 초청인의 이름이 들어간 출생 증명
4. 피초청인이 부친일 경우, 양 부모의 이름이 들어간 출생증명, 결혼 증명, 전에 결혼한 적이 있으면 결혼이 종결됐음을 보여주는 이혼 증명 또는 사망 증명

“나도 언니처럼 엄마를 먼저 초청할까 생각 중이야. 아빠는 아직 정리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여자가 이민 생활에 혼자 빨리 적응하잖아. 엄마를 먼저 오라고 하면 아빠는 한동안 홀아비 생활을 하셔야 해서 그것도 걱정인데 그래도 엄마가 오고 싶어 하나까 그냥 부르려구.”

“부모님을 초청할 때 이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이야. 그런데 너희는 두 부부가 충분히 벌고 있으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고, 엄마 역시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셨던 적은 없으시지?”

업소탐방

‘The Garage’ 자동차 리페어 크리스천 오너 마이크 조 씨 부부

휴스턴에서 30년가량 자동차 딜러, 정비, 렌터카 등 자동차 관련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하던 마이크 조 씨 부부가 앨버커키에서 12년간 탄탄하게 자리잡아 온 ‘The Garage’를 올해 1월부터 인수해 운영 중이다.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 장로였던 마이크 조씨는 “앨버커키로 사업터를 확장 이전하게 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셨다”고 한다. 조 씨는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늘 신앙 환경에서 지내왔다고 한다.

오퍼레이션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 씨와 함께 부인 헬렌 조 씨는 어카운팅을 맡고 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차량 정비는 일반 승용차에서부터 디젤 트럭까지 모든 종류의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The Garage’는 조 씨의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기술진(ASE: Certified Master Technician, 각 분야-전기, 유럽 차, 일본 차 전문가)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정비로 12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이다. 또한 앨버커키 저널의 ‘READER’S CHOICE THE BEST OF THE CITY’에 2014, 2015년 연속 최고의 Auto Repair Shop으로 선정되었다. 무료 견인, 차량 운행 서비스, 고품질 부품 사용, AAA 지정 서비스 업체, AC 델코 프로페셔널 서비스 업체, 뉴멕시코주 버날리오 카운티 앨버커키시 차량 정비 지정업소이다.

‘The Garage’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구운 쿠키를 준비하고 직원들의 에너지 보충과 기분 전환을 위해



휴게실에 간식과 음료수를 항상 준비해둔다고 한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토요일 일요일은 쉰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야간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엔 열쇠함에 열쇠를 넣고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면 다음 날 아침 진단팀이 맡아서 진단한다. 웹사이트 고객만족도를 통해 고객과 소통을 나누며 세심한 관리도 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웹사이트(<http://thegaragenm.com>)와 (505) 352-5152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는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이다.

(아리조나 타임즈 기사 부분 발췌) ■

전문가의 한마디

국외 거주 부모 초청 수속 진행 과정

먼저, 미시민권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부모초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서류가 승인되면 제출한 서류는 이민국에서 미국무성으로 이관됩니다. 국무성에는 재정 보증서와 비자 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 조화가 이뤄집니다. 이때, 영주권신청서의 DS-230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 수속을 하고 인터넷으로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신원 조회, 신체 검사, 납세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하고 인터뷰가 잡히면 준비 서류를 구비하셔서 인터뷰 당일에 지참하시면 됩니다.

초청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걱정은 없는데, 혹시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실까봐 걱정이야. 엄마가 전에 폐결핵을 심하게 앓으신 적이 있거든. 완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병원에서 흉부선 진단

결과, 폐에 전에 앓았던 상처가 남아 있다고 보여줬다네. 현재 증상은 없는데 갑상선에 혹이 생겼대. 이걸로 신체 검사에서 떨어질까봐 병원을 기피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완치가 됐으면 상관없어. 우리 아빠도 폐결핵 앓으신 적 있어. 우리 부모님 세대 중 폐결핵 한 번 앓지 않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니? 신체 검사는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인터넷에서 미 대사관 지정 병원을 찾아서 엄마께 알려드려. 그곳으로 가시라고.”

전문가의 한마디

신체 검사

이민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미 대사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신체 검사의 모든 절차는 비자 면접일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폐결핵을 앓았을 경우라도 약물 치료로 완치가 됐다면 이민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신체 검사 결과를 미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민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했을 때 입국 심사관이 다시 미국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추가로 이민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재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타페 뉴스

산타페 시장 곤잘레스 '두리하나의 날' 선포

2016년 5월 21일 미국 '두리하나' 산타페(Santa Fe)지부(Durihana Inc.)설립을 기념하여 하비에 M 곤잘레스 (Javier M Gonzales) 산타페 시장이 5월 21일을 '두리하나의 날'로 선포했다. 아래의 글은 선언문을 번역한 글이다.

산타페 공식 선언문

두리하나 선교회는 1999년 10월 2일 천기원 목사님이 설립하였고 '두리하나'의 사명은 육체적 정신적 암흑세계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힘쓰고,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며, 남한에서 그들의 삶을 재건할 때 그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들을 섬기며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리하나 선교회'는 세상의 가장 억압적인 나라의 공포에서 1,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2009년 '두리하나 선교회'는 기숙학교를 설립하여 탈북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의 정신과 삶, 그리고 승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

'두리하나 선교회'는 북한이 진실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위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확신한다.



천기원 목사와 하비에 곤잘레스 시장

'두리하나'는 2004년 북한인권조항에 의거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계 열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해줄 것을 호소하며 2016년 5월 21일 '두리하나 선교회'는 뉴멕시코, 산타페에 미국지사를 설립한다.

'두리하나'는 천기원 목사를 뉴멕시코, 산타페의 두리하나 지부 설립식에 기초연설자로 모셨으며 산타페 시장인 본인 JAVIER M. GONZALES는 2016년 5월 21일 토요일에 "두리하나의 날"로 선언한다.

2016년 5월 21일 Javier M Gonzales 시장 ■



5월21일 'The Light at Mission Viejo' 교회에서 산타페지부 설립축하 집회를 선언하는 라이언 엘스워즈(Ryan Ellsworth) 목사. 알버커키에서는 김기천 목사를포함 6명의 한인이 참석했다.

신앙 단상

순례길 (Pilgrimage Route)

한국에서는 지난 십여 년 전 산티아고 순례길 (Camino de Santiago)에 대한 커다란 관심이 일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12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야코보 성인 (Saint James)의 유해가 스페인의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에서 발견되어 유럽의 많은 순례자가 그곳을 찾으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은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기 위해, 혹은 그냥 아무 이유없이 스스로 원한 그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에게 순례는, 비단 죄에 대한 보속의 수단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성인들을 존경하고, 은혜를 받기 위한 성찰과 은총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존 번연 (John

신동완 파우스티노

앨버커키 천주 공동체 회장



Bunyan)의 천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 (Christian)과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Cristiana)가 걸었던 이 세상 (This World)으로 부터 다가올 세상(That Which To Come)에 이르는 순례길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걷는 동안 많은 유혹과 절망에 마주하게 되고, 믿음 (Faithful)과 희망 (Hopeful)과 대범함 (Great-Heart)의 도움으로 무사히 종착지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천로역정 속의 무지 (Ignorance)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종착지인 천상의 도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케빈 김, NM 골프 챔피언전에서 우승

한인 2세 케빈 김 군이 지난 5월 10일 뉴멕시코주 청소년부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과 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낸 케빈 김 군은 라 쿠에바 하이스쿨 시니어로 경기 이후 여러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챔피언전 첫 날과 다음날까지 우승 최종 라운드에서 5타 차로 각각 67과 72였고 통산 144로 승리했다. 케빈은



단체전에서도 라 쿠에바가 클리블랜드를 이기고 챔피언이 되는데도 큰 몫을 담당했다. 경기 마지막 라운드에서 프론트 사이드에서 2 오버였으나 제 감각을 찾아 후반 9홀에서 2언더를 쳤다.

케빈의 부모 김철 씨와 김연숙 씨는 “외아들인 케빈이 골프를 시작한 것은 7살 때부터이다. 아들은 노력하는 형이다. 매일 서너 시간씩 연습한다. 방학 동안은 매일 골프장에서 살 정도로 열심이다. 골프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지 부모가 매번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만 약간 강도를 높였고 그다음은 본인 스스로 빠져서 했다. 골프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강한 것 같다. 진로는 주니어 가을에 벌써 몇 군데 대학에서 연락이 와 미주리 주립대학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아리조나 타임즈 기사 부분 발췌)

지역소식-라스쿠르시스

평통자문위원 한국방문

미주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 7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미주지역 전체회의가 17일(한국시간) 서울에서 개막된 가운데 미주 평통위원들이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대화’를 갖고 통일 공감대 확산을 강조했다. 뉴멕시코에서는 조규자 자문의원(한인회 전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



산타페 서점, 로컬 작가의 북 사인회 주최

산타페 DeVargas 센터는 그랜드 재개점을 축하하는 이벤트로 6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op.cit. books에서 로컬 작가들의 도서전시와 함께 북 사인회(Book Signing Event)를 열었다.

매 시간마다 다섯 명의 작가를 교체해가며 20여명의 지역 작가들이 참여했다. 작가들이 자신의 책을 소개하거나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화를 나눈 후 구매한 책에 저자의 사인을 해주며 독자들과 교감을 나누었다. UNM Press에서 출판한 책이 11권, Rio Grand Books에서 출판한 신간이 5권이 포함되어 소개되었는데 UNM Press에서 ‘Amazing Paper Airplanes’ 책을 출간한 이경화 장로도 사인회에 참가했다. 시집, 소설이 주류였으나

뉴멕시코 지역성 있는 책도 다수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UNMPress에서 나온 책으로 뉴멕시코 야생화를 소개한 Larry Littlefield의 ‘Wildflowers



of Northern & Central New Mexico’ (이 책은 코스코에서도 판매중이다), 뉴멕시코 토질과 기후에 잘 맞는 나무나 정원수목을 소개하는 Baker Morrow의 ‘Best Plants for NM Garden & Landscapes’ 그리고 Rio Grande Books출판사 신간으로 Donoho의 ‘NM History’등이다.

북 사인회를 주최한 서점 ‘op.cit.books’은 산타페에서 20여년간 성장해 온 서점이다. 자신을 책 벌레면서 책 수집가였다고 자처하는 서점 주인 노에미 데 보디스코 여사는 최근 서점 자리를 드발가스 몰로 옮긴후 고객의 서점 왕래가 더 늘어 나고 있어서 기뻐하고 있다. 서점이름이 특이한데 op.cit.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opere citato’의 약자로서 각주를 달때 자주쓰는 용어이다. 번역하면 ‘앞에서 인용한 책에서’ (in the work cited)란 뜻이다. (아리조나 타임즈 기사 부분 발췌) ■



NM 공화당 전당 대회 위한 대의원 선출에 한인 2세 당선

한인 차세대 리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올해 7월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위한 뉴멕시코주 대의원 선출이 5월 21일(토)에 앨버커키에서 있었다. 자질이 검증된 150 명의 후보자 가운데 21명이 선출되었는데 그 중 최초로 한인 2세가 당선되었다. 주인공은 로스앨러모스에서 10년간 안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리사 신(Lisa Shin, Los Alamos Family Eyecare) 씨이다.



신 씨는 뉴멕시코 주립대학 원목이자 나바호 선교 목사인 신경일 목사와 신수자 사모의 1남 2녀 중 장녀이다. 그녀는 “먼저 공화당 전당대회를 위한 뉴멕시코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영광스러운 한편 겸손한 마음이 든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규제 완화를 위해 강하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경제적 번영의 중심은 소규모 사업의 성장에 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성실히 일해 세금에서나 기부금을 통해 많은 공헌을 해왔다.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듣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제적인 번영, 기회, 자유를 찾기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으로 이민 왔다. 1세들의 꿈과 노력을 기반으로 후손들의 삶 또한 지속적으로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씨는 보스턴에 있는 여자 명문대학 Wellesley College 를 졸업한 후 펜실베이니아 안과대학을 졸업했다. 부군은 로스앨러모스 핵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슬하에 7세 딸이 있다. 아리조나 타임즈 기사 부분 발췌) ■

지역소식-칼스베드

오바마 대통령 가족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 방문

미국 국립공원제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월17일 뉴멕시코주 칼스베드 케번스국립공원을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

동굴을 관광하기에 앞서서 Visitor Center에 있는 주방과 식당 카페에 들러 종업원들과 담화를 나누고 사진도 함께 찍었다. 지하동굴 관광은 약 3시경에 국립공원직원 벨러리골케의 안내로 시작되었다. 대통령 가족은 빅룸을 포함해서 동굴의 경이한 경치를 감탄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오후 4시30분 공원 레인저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다음 행선지인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공원을 향해 떠났다. ■

6페이지에서 계속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기쁜소식은 광야 속에 말씀의 생명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하게 보이지 않아서 쉽게 찾기는 않지만, 두드리고 찾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은 오아시스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맹장염 수술을 받기 전에 여러시간동안 물을 못먹고 대신 약물 두껍을 마셨습니다. 입이 바짝 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되어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이제 생수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식사하고 물을 마시는데, 물맛이 영 밍밍하셨습니다. 같은 물병의 물이었는데 그렇게 달랐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갈급할 땐 생수 보다 더 귀한데, 자기 만족에 빠지다 보면 그 말씀 귀한 것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급할 때란 바로 광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전합니다: “²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³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줄 너희가 알아라. ⁴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우리는 여러가지로 시험과 시련을 겪으며 인내하는 동안 광야같은 세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곧 광야가 하나님이 가까이 말씀하시는 장소인 것을. 그래서 초기 교부들 이래 여러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삶이 광야 같은 곳이며, 알버커키에도 광야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 처럼 들어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의 음성을 들으셔서 온전히 구비되어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 오하이오 광야에서 이 시용 목사 드림 ■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지역사회 소식

이경화 장로 종이접기 비행기 책 출판 감사예배

6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앨버커키 감리교회에서 이경화 장로의 종이접기 비행기 책(Amazing Paper Airplanes) 출판 기념예배를 드렸다. 속회가 안내를 장식은 교우들이 맡았다. UNM 교수인 강성필 속회원이 유머와 재치가 담긴 사회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성경 봉독은 최성원 권사, 통역은 한승우 전도사, 반주 박영신 성도, 다과와 축가는 이경화 장로의 자녀들이 맡았다. 침례교회 윤성열 목사가 “온 커뮤니티가 기뻐하며 축하할 일”이라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을 복 주사 늘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하신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몸 된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긴 부부를 축복해 주시길” 기도했다.

담임목사인 김기천 목사가 요한계시록 2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메사 버드(Mesa Verde) 국립공원 박물관에서 보았던 인디언 유적물을 예로 들어 “그 유적물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어진 것을 보면서 어떤 기술로 뚫었는지 어떻게 뚫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기록이 없는 관계로 알 수 없어서 아쉬웠다. 그만큼 기록은 중요하다. 성경도 기록 없이 구전되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난을 통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경화 장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오래 연구하고 또 그 연구의 결실을 기록으로 남겨 출판 감사예배를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설교했다.

다음 순서는 미국 오기 전부터의 오랜 친구인 김준호 장로가 “이경화 장로는 전기 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항공 우주산업에 25년 이상을 일해왔고 은퇴 후에 종이접기 비행기를 취미로 시작해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며 인생 여정을 소개했다. 주님의 교회 이은주 사모는 “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출판까지의 진행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어려운 과정을 인내와 소망으로 결실을 보게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축하드린다. 받은 달란트를 100% 다 쏟아내시는 모습에 항상 도전을 받는다”고 축하했다. 책소개로는

“책은 부모님께 물려 받은 동심이 담긴 책, 오랫동안의 결실이 담긴 책으로 가족 사랑과 개인의 노력이 배인 책이다. 출판사가 UNM이라는 것은 교정이나 제본, 편집 모든 부분에서 전문적인 책임을 보증해준다. 실제 비행기와 짝을 (Counterpart) 짓고 실제 비행기를 소개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항공기와 관련된 과학과 역사 등의 지식도 함께 전달한 책으로 뉴멕시코 상징 쥬니 마크와 한국의 태극마크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냈다. 어린이의 창조성을 더 발휘하기 위해 가위를 쓰지 않는 오리가미의 고정 관념을 벗어난

창의적인 디자인을 채택했다. 종이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잘못 소개된 책이 많아 이를 바로 잡으려고 앞부분에는 이론을, 뒤에는 미술적 데코레이션을 포토 카피해서 쓸 수 있게 Template 디자인도 부록으로 넣었다.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쓸 수 있게 링크도 기재했다 (www.amazingpaperairplanes.com/templates)”고 소개했다.

이어 이태길 목사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특송 후에 가족 헌악 앙상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와 ‘기뻐하며 경배하세’ 두 곡을 연주했다. 가족간의 화목과 유대감을 느끼게 해 준 연주는 앙코르를 받을 정도로 수준급이었다.

김익석 목사는 기도를 통해 “이 장로님이 하늘의 종이 비행기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위엣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

이어 저자는 답사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교우 순서 말은 이들에게 일일이 감사하고 책이 출판되기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소개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늘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 이들에게 감사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격려 댓글 멀리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인도, 독일, 영국 등지의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 부모들이 보내준 사진과 소식들로 다시 용기를 얻은 사연을 소개했다.

출판사를 통해 출판한다는 꿈을 완전히 포기하기 일보 직전 뉴멕시코 대학 출판부를 통해 출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출판사인 뉴멕시코대학 출판부(UNM Press)는 매년 70부 정도의 신간을 출판하는데 아동서적도 네다섯 권 씩 출판해오고 있다. 출판에 앞서서 12명의 교수진과 외부 중고등학교 교사 두 명의 논평을 거쳤고 편집과정에도 10여 명의 편집인이 분야별로 세밀하게 편집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수고한 출판사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종이비행기에 실어 날리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답사를 마감했다.



가족대표로 장남인 이재원 씨는 참석자들에게 감사하고 아버지가 종이접기 재능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은퇴 후에 손자들과 놀아주면서 재능을 살린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어머니께서 짧게 하라고 당부하셨다”고 해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이석종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단체 사진촬영 후 현용규 목사의 식사 기도로 자녀들이 마련한 다과를 나누었다.

책은 Amazon.com과 일반 서점, UNMPress에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20~25% 할인 중이다. 이경화 장로는 참석한 이들과 한국학교 등에 책을 기증했다.

아리조나 타임즈 2016년 6월 8일 기사에서 ■

6페이지에서 계속

<잊지 말아야 하는 희생>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참전한 군인들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침략을 막아낸 국군들의 장엄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된 것이다.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6주년이 지났다. 미국에서는 이후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전쟁이 발발했던 6월을 지내면서 전쟁으로 인해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English Worship § 9:30 am-10: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주택용자 Loan Officer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부동산 Realto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치과 Dental Clinic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태권도 TaeKwonDo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의류 Clothes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한의사 Acupuncture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종교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화랑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764-1900)

회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증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추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Bernalillo/Belen/ Bosque Farm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편집후기

이번호는 6.25특집이 되었습니다. 한인회의 6.25
관련 행사 보고와 오형철 목사님의 특별 기고문,
김기천목사님의 칼럼, 두리하나 산타페 지부
설립, 히로시 미야무라 참전용사 기사 모두가 6.25
한국전쟁과 관련이 되는 글입니다. 계획했던 기사를
지면부족으로 실지 못한것이 유감입니다. 미술시리스
기사도 이번호는 지면관계로 쉬고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먼곳에서 기고해주신 이시용목사님, 오형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9/10월호 원고는 8월29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위원장 이경화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6년 7/8월호

발행일: 2016. 7. 1.

발행인: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는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보실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voiceofnm/

웹사이트: voiceofnm.kumcabq.com

The Garage AUTO REPAIR

**'앨버커키에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마이크 조
2년 연속 앨버커키 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모든 종류의 차량 정비

일반 승용차에서부터 디젤 트럭까지
고품질 부품만을 사용하여 믿을수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기술진

30년 경험의 마이크 조와 10명의 전문 기술진
정확한 진단과 정비

Fleet Services



무료 견인/견적



고객만족서비스



ASE Certified Master Technician

각 분야별 전문가
(전기, 유압 차, 일본 차 등)

- AAA 지정 서비스 업체
- AC 델코 프로페셔널 서비스 업체
- 뉴멕시코주 버널리오 카운티
앨버커키시 차량 정비 업소

문의사항 (505) 352-5152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시 ~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 근무외 시간에 차량을 맡기실 경우,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두고 열쇠를 넣어주세요.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NAMI ROYBAL

한국성명: 류정남
TAX SPECIALIST 2



8201 Golf Course Rd NW
Ste F-2
Albuquerque, NM 87120
Office: 505.792.0997
Cell: 505.220.9372
Fax: 505.792.7871
nami.roybal@tax.hrblock.com

AVAILABLE
YEAR-ROUND
BY APPOINTMENT
HRBLOCK.COM

**세금보고를
해 드립니다**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앨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관동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육 / 양장피 잡채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